

TiO₂ 광촉매, 새집증후군 타고 난립

1년 사이 시공기업 300여사 우후죽순 ... 2007년 국내시장 5000억원

광촉매 코팅으로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1년 사이에 광촉매 코팅 시장에 참여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3년 현대웰코트 등 9사에 불과한 광촉매 코팅 시공기업은 2004년 들어 무려 300여사로 크게 늘어났다.

2003년 7월 발표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료에서는 국내 광촉매제품 시장이 2003년 2400억원에서 2005년 3460억원, 2007년 5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 광촉매 코팅 시장에 뛰어든 아크플래시코리아는 일본 광촉매 시장 1위인 아크플래시의 광촉매 원액을 직접 들여와 전국에 대리점을 모집하며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크플래시코리아는 자사 광촉매 원액의 주 원료인 이산화티타늄(TiO₂) 입자가 다른 기업들의 절반 크기인 5nm(나노미터)에 불과해 시공시 훨씬 많은 입자를 고르게 살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종합상사가 수입·판매하는 광촉매로 시공하는 현대웰코트는 강남 타워팰리스 시공경력 등을 앞세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ENB코리아는 직접 생산하는 광촉매 원료를 토대로 대기정화와 수질정화 시스템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솔라텍은 광촉매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무인자동청소기 등 다양한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관련기업들이 광촉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광촉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산화티타늄의 입자를 나노 크기로 가공해야 하고 광촉매 원액을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는 시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시공능력을 비교해 시공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화학저널 2004/09/16>